

아브라함 카이퍼의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Science and Faith

focusing on the Thought of Abraham Kuyper

최용준(한동대, 교수)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Abraham Kuyper(1837-1920), a Dutch theologian, politician, journalist and educator tried to integrate science and faith. Kuyper founded the Vrije Universiteit, in Amsterdam in 1880 and in 1898, while receiving an honorary doctorate in law from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in the United States, he gave lectures on Calvinism and they were published in 1899 as a book. In this book, especially at Chapter 4, he explains in detail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science. Furthermore he dealt with this issue again in his three volumes of *De Gemeene Gratie*(1902-1904). First of all, the ground for integration is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The faith in God's predestination and providence encouraged scientists' motivation to develop science. The doctrine of common grace restored science its domain from medieval bondage. The principle of sphere sovereignty has advanced its indispensable liberty from its unnatural bondage. By revealing the ultimate antithesis between normalism and abnormalism, Calvinistic faith offered the solution for the inevitable academic conflict of principles. In conclusion, it is discussed how Kuyper's insight has been developed by his successors and is now called Neo-Calvinism and his legacy and impact are evaluated and some lessons for Korean context are reflected.

Key Words: Abraham Kuyper, Science, Neo-Calvinism, Common Grace, Sphere Sovereignty

I. 서론

네덜란드의 신학자요 정치가이며 언론인이자 교육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1880년 암스테르담에 기독교 대학인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를 설립했다. 그가 이 대학을 세운 이유는 국가와 교회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학문과 신앙이 통합된 대학으로 미래 국가 지도자와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함이었다. 나아가 그가 1898년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특별 강의를 했던 내용이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칼빈주의: 여섯 개의 강연*)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Kuyper, 1899, 박대현, 2021). 그중 제4장에서 그는 “Het calvinisme en de wetenschap(칼빈주의와 학문)”이라는 제목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적 관계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 후, 그가 세 권으로 출판한 *De Gemeene Gratie*(*일반 은총론*)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Kuyper, 1902-1904). 이 세 권 중 학문과 예술 영역만 클로스터만(Kloosterman)이 부분적으로 영어로 번역한 책이 *Wisdom & Wonder: Common Grace in Science & Art*(*지혜와 경이: 학문과 예술에서 일반 은총*)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2011). 물론 오늘날까지도 칼빈주의(Calvinism)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며 특히 이런 명칭을 칼뱅도 거부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McGrath, 1991: 259). 하지만 카이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칼뱅의 신학을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및 세계관적으로 확장하여 일반 은총, 세계관, 구조와 방향 및 영적 대립(antithesis)과 같은 중요한 개념들을 발전시켰는데 그의 이러한 사상은 ‘신칼빈주의(Neo-Calvinism)’라고 불린다. 이런 점에서 카이퍼는 당시의 협소한 칼빈주의를 극복하면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적 관계에 대해 더 발전된 형태를 위한 토대 마련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카이퍼의 사상에 관해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그가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려고 노력한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다. 카이퍼와 관계 없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관해 연구한 기독교학자로는 미국의 로버트 해리스(Robert A. Harris)가 있다(Harris, 2004, 2014).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모든 학문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야 함을 강조한 카이퍼의 사상은 분명히 기독교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가 어떻게 신앙과 학문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그의 다양한 저작들을 통해 고찰해 보고 다른 학자들의 저작도 제시한 후 그의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남긴 영향은 무엇인지 평가함으로써 결론을 맺겠다.

II. 아브라함 카이퍼의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관한 고찰

1. 학문과 신앙의 통합 근거

먼저 학문과 신앙이 통합되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 때문이라고 카이퍼는 주장한다. 즉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므로 우리의 학문 활동도 마땅히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이 점을 가장 예리하게 인식한 학자로서 1880년 10월 20일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교를 설립하여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내의 신교회(新教會, Nieuwe Kerk)에서 “영역 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ring)”이라는 제목으로 개교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그는 자유대학교의 설립 이념을 한 마디로 이 “영역 주권”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세상의 다양한 영역들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따라서 각자 개별적인 주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골 1:16)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한 인치도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Kuyper, 1880, 박태현, 2020). 다시 말해 학문의 영역도 궁극적인 주권은 주님께 있으므로 당연히 학문과 신앙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엡 1:10) 안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유대학교가 학문과 신앙이 통합된 기독교 대학이 되길 희망했다. 카이퍼의 사상을 계승한 바빙크(Herman Bavinck)도 학문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보았고(Bavinck, 1897)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는 이 점을 더욱 발전시켜 학문은 결코 종교적으로 중립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Dooyeweerd, 1935: 11, 1953: 3-4, Choi, 2000). 필자는 이 카이퍼의 견해에 동의하며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하는 기독교학자라면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카이퍼가 어떻게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설명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학문과 신앙의 통합 동기

카이퍼는 학문이란 경험으로 지각한 구체적 현상에서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현상 전체를 설명하게 될 때 비로소 학문이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또한, 개별 학문은 한 항

목으로 모이고 이론이나 가설을 통해 한 원리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결과를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엮어내면 학문이 성립된다고 그는 설명한다(Kuyper, 1899: 105, 박태현, 2021: 198).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교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가지신 지혜로 만물의 창조를 계획하셨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통일성 있고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이다(잠 8). 따라서 전 우주의 생성, 존재 및 과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과 질서에 순종하며 자연과 역사 속에는 그 계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책임의식을 가진 청지기로써 만물을 이해하고 다스릴 문화적 소명(cultural mandate)을 가진다(창 1:28). 그러므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학문은 시작되며, 인간은 이 학문 활동을 통해 창조주의 지혜를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더욱 열심히 할수록 학문은 발전하고 풍성해지며 나아가 이를 올바르게 응용하여 창조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현해 나가야 한다. 그 첫 번째 예로 카이퍼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Kuyper, 1904: 500-502). 결국, 피조계는 엄밀하고 일관된 법칙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며 그렇지 않다면 학문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학문은 하나님의 창조적 발명이며,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학문을 올바르게 발전시켜 나감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욱 발전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의미하므로 창조 신앙은 학문을 발전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카이퍼가 강조한 성경적 신앙은 만물에 고정된 법칙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종속시키고 그 원인도 이미 수립된 계획에 근거하며 모든 사물이 전체 창조와 역사의 한 유기적 일부를 형성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작정에서 자연법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법과 영적 법칙의 확고한 토대와 기원을 발견한다. 즉 영적 법칙과 자연법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존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하고 포괄적인 계획을 성취한다고 카이퍼는 설명한다(Kuyper, 1899: 107-108, 박태현, 2021: 200-201).

이처럼 만물의 통일성, 안정성 및 질서를 개인적으로는 예정으로, 우주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으로 믿는 것이 칼빈주의적 신앙이므로 이러한 신앙은 학문에 대한 동기를 일깨우고 발전을 장려할 수밖에 없다. 이 통일성, 안정성 및 질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학문은 추측을 넘어설 수 없으며 오직 우주의 유기적 상호연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학문은 구체적 현상에 관한 경험적 탐구에서 일반적인 법칙으로, 그 법칙에서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서적 신앙은 통찰의 통일성, 지식의 확고함 및 질서를 요구하며 이 명백한 필요 때문에 지식에 대한 갈망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카이퍼는 주장한다(Kuyper, 1899: 108-109, 박태현, 2021: 201-202).

그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로 그는 1575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레이든(Leiden) 대학교의 역사적 배경과 그 학문적 성취를 언급한다(Kuyper, 1899: 103-104, 박태현, 2021: 195-197).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세워진 이 대학교는 스페인 필립 2세의 학정에 대해 80년 동안 계속된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 네덜란드 국민의 요청을 받아들인 빌름 1세(Willem I)에 의해 칼뱅의 개혁 신앙을 따르는 대학으로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독립 이후 최초로 행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이 대학이 설립되면서 네덜란드는 학문 분야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낳기 시작했다. 카이퍼는 그 예로 저명한 철학자였던 립시우스(Justus Lipsius), 문헌학자였던 티베리우스 험스터하위스(Tiberius Hemsterhuis), 작가였던 프랑소와 험스터하위스(François Hemsterhuis) 그리고 임상의학자였던 부어하브(Herman Boerhaave)를 언급한 후 나아가 세계 최초로 과학의 연구에 가장 기초적인 도구인 현미경과 망원경 및 온도계도 네덜란드에서 발명되어 과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음을 상기시킨다(Kuyper, 1899: 104, 박태현, 2021:

196). 즉 리퍼헤이(Hans Lipperhey)는 안경기술자이자 제조업자로서, 1608년에 우연히 볼록 렌즈와 오목렌즈 둘을 겹쳐서 먼 곳의 물체를 보았을 때 아주 가깝게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망원경을, 얀센(Zacharias Janssen)은 현미경을 발명했으며 판 레우언훅(Antonie van Leeuwenhoek)은 이 현미경을 더욱 개량하여 미생물학을 크게 발전시켰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의 에디슨으로 불리는 드레블(Cornelius Drebbel)은 온도계 및 세계 최초의 잠수함도 발명했으며 스밤머르담(Jan Swammerdam)은 곤충학 및 생물학에 크게 이바지하였는데 그는 자연을 창조의 비밀을 연구하는 기회로 이해하였고 라위스(Frederik Ruysch)는 식물학 및 인체를 특수 용액에 담아 보존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인체해부학 및 의학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나아가 네덜란드는 16~17세기에 동인도 및 서인도회사를 설립하여 전 세계 무역을 독점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과 기술 및 문화 예술의 황금시대(De Gouden Eeuw)를 열었다.¹⁾ 가령 메르카토르(Gerardus Mercator)는 이미 1538년에 세계 지도를 작성했으며, 하위겐스(Christiaan Huygens)는 진자 시계를 발명했고 그 후에도 저온 물리학의 개척자였던 온네스(Heike Kamerlingh Onnes)는 1894년, 레이든 대학에 저온 연구소를 창설한 후 이곳에서 액체 공기·액체 수소·액체 헬륨의 제조에 성공하여 191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이처럼 16세기 이후 근대 과학이 네덜란드에서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밑받침되었다고 카이퍼는 그의 일반 은총론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Kuyper, 1903: 253).

이 점에서도 필자는 카이퍼의 입장을 지지하는데 이는 그가 구체적인 역사적,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 교수였던 호이카스(Reijer Hooykaas)도 그의 책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근대 과학의 출현과 종교)에서 근대 과학을 발전시킨 학자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실례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Hooykaas, 1972, 손봉호, 김영식, 1987).

3. 학문의 영역을 회복한 신앙

나아가 카이퍼는 칼빈주의적 신앙이 학문의 정상적인 발전을 억눌렀던 중세적 세계관으로부터 학문을 해방하여, 죄가 학문에 작용하여 완전히 잘못된 지식을 낳지 않도록 억제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교리를 통해 학문을 원래 고유한 영역으로 회복시켰다고 강조한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에서 구원론적이지만 죄인과 성인, 현세와 내세, 지상과 천상이라는 이원적 요소로 구별하면 그 상호 연관성을 보지 못하고 서로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중세 천주교는 이러한 오류에 빠져 은혜의 세계인 천상적 요소만 집중하여 명상하다 보니 자연의 세계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영원에 대한 사랑으로 현세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영혼만 보살폈기에 몸에 관한 관심은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은 배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비적으로 숭배했으며 그리스도는 우주로만 인식되고 그분의 우주론적 주권은 사라졌다고 카이퍼는 날카롭게 지적한다(Kuyper, 1899: 110-111, 박태현, 2021: 207-208).

하지만 성경은 결코 이러한 이원론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는 강조한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의 생명이신 영원하신 말씀(요 1:1-4; 요일 1:1-2)”이라고 했고 바울도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고 존재한다(롬 11:36)”고 증거

1) 이에 관해 네덜란드 vpro방송이 제작한 황금시대 특별 다큐멘터리 참고: '새로운 학문(Nieuwe Wetenschap) www.vpro.nl/speel~NPS_1210674~een-nieuwe-wetenschap-de-gouden-eeuw~.html

하며 나아가 구속 사역의 목적이 죄인의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의 구속과 하늘과 땅의 만물이 유기적으로 연합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엡 1:10; 골 1:20).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서의 중생만이 아니라 우주가 새롭게 됨을 말씀하시며(마 19:28) 요한이 밧모섬에서 들은 찬송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었다(계 4:11).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구원받은 영혼들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 회복이며 그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모든 것이 되심을 카이퍼는 강조한다(Kuyper, 1899: 111-112, 박태현, 2021: 208-209). 따라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및 지혜를 나타내는 피조계는 죄로 훼손되었으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고 마침내 새롭게 완성하실 것이다. 성경적 신앙은 현세적인 삶이 영원한 것을 희생시켜 그 가치를 회복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계시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회복한 것이다(Kuyper, 1899: 112, 박태현, 2021: 209).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신앙과 학문의 통합도 완전해질 것이라고 일반 은총론에서 그는 주장한다(Kuyper, 1903: 680).

그러므로 카이퍼는 칼뱅이 다른 많은 신학자와는 달리 자연을 단지 부수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고 안경 비유를 사용하여 한쪽은 성경, 다른 한쪽은 자연이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해독할 수 있다고 본 것을 매우 중요시했다. 따라서 자연을 연구하는 학자는 헛되고 어리석은 일들을 추구하면서 그 능력을 허비하는 것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관심은 창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령 그는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할 때 밀라노에서 단지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것에만 헌신하다 본인이 감염되어 사망한 보로메오(Carlo Borromeo) 추기경과는 달리 제네바에서 칼뱅은 환자들을 영적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격리하는 위생 정책도 시행했음을 상기시킨다. 나아가 암스테르담에서 목회도 하면서 동시에 선박업자로서 천문학과 항해술을 발전시켰던 플라시우스(Petrus Plancius)도 언급한다(Kuyper, 1899: 112, 박태현, 2021: 210-211). 따라서 카이퍼는 칼빈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점과 동시에 유사점도 지적하는데 즉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절대시한다는 점은 칼빈주의가 동의할 수 없지만, 자연의 탐구를 장려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동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Kuyper, 1899: 113, 박태현, 2021: 212).

또한, 일반 은총 교리를 통해 카이퍼는 불신 세계도 많은 점에서 뛰어나고 따라서 '전적 부패'라는 교리가 항상 우리 경험과 부합되지 않는 않으며 반대로 이 경험에서만 출발하면 우리의 성경적 신앙고백은 땅에 떨어지고 만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을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중생은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Kuyper, 1899: 114, 박태현, 2021: 213).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중세적 세계관은 “순수한 자연적인 것(*pura naturalia*)”이라는 교리로 탈출구를 찾으려 했다고 카이퍼는 설명한다(Kuyper, 1899: 115, 박태현, 2021: 215). 즉 삶에는 지상적 영역과 천상적 영역이 있는데 아담은 두 영역에 대한 준비를 잘하였으나 타락으로 천상적인 것을 잃었지만, 지상 생활을 위한 자연적 능력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락한 사람이 자연적인 생활에서 탁월함을 보인다는 인간론 위에 로마 가톨릭교회가 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체계는 성경적 '죄' 개념이 빠져 있고, 인간 본성에 대해 평가 절하하는 잘못된 이원론이라고 카이퍼는 지적한다. 이 교리에 따르면 성직자는 독신으로 지상적 유대를 끊어 평신도보다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지상의 소유를 버리고 자신의 의지를 희생하는 수도사는 윤리적으로 성직자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서고 나아가 모든 지상적인 것과 단절되어 동굴에서 수행하는 고행자는 최고의 완전에 도달한다고 본다. 따라서 교회가 돌보지 않는 것은 모두 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지상적 영역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도록 격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Kuyper, 1899: 115, 박태현, 2021: 217).

하지만 성경적 신앙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카이퍼는 주장하면서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과 함께 일반 은총 교리로 타락한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설명한다. 죄는 그 대로 두면 홍수 이전 시대처럼 인간 생활이 완전히 타락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죄를 불드셨는데, 이것이 일반 은총이며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전체 인류의 생활 및 자연에 개입하셨다. 하지만 죄의 핵심은 이 은혜로 죽지 않으며, 이 은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러나 야생 짐승을 길들이듯이,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사람 안에서 죄의 활동을 억제하되, 부분적으로는 그 세력을 부수 시고, 부분적으로는 사람의 악한 영을 길들이시며, 그 나라와 가정을 교화시키심으로써 억제 하신다.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죄인도 사랑스럽고 많은 매력을 갖게 되지만 죄의 본성은 여전히 해롭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을 억제하시며 악에서 선을 내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죄성을 비난하는 일에 절대 게으르지 않으면서, 우리를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살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두려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인류에게 감추어져 있는 모든 재능을 드러나게 하시고, 일상적 절차에 따라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시며, 지상 교회가 설 자리를 확보해 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한다. 이러한 신앙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삶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왜냐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께 속하며 이 둘에서 ‘최고 경영자와 건축가’의 걸작을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다른 학문을 저급하다고 여기며 불신자에게 맡기고 신학과 명상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작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모든 지적 능력을 다해 천상적 사물뿐만 아니라 지상적 사물도 연구하여 자연과 인간 산업의 생산물에서, 인류의 생활과 역사에서 창조 질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Kuyper, 1899: 116-118, 박태현, 2021: 220-221). 이처럼 성경적 창조와 일반 은총에 대한 신앙은 학문의 본래적 영역을 회복한다고 카이퍼는 강조한다. 이 점에 대해 필자는 카이퍼가 중세적 세계관의 약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칼뱅의 개혁 신앙이 대안이 되어 학문과 신앙이 통합될 수 있음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본다.

4. 학문을 자유롭게 발전시킨 신앙

나아가 카이퍼는 칼빈주의적 신앙이 학문을 비자연적인 속박에서 구원하여 필요한 자유를 제공했다고 강조한다. 자유와 참된 학문 간의 관계는 공기와 우리 삶의 관계와 같은데 물고기가 번성하려면 물속에서 움직여야 하듯이 학문은 자신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고유한 방법이 요구하는 바를 엄격하게 지킬 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는 방종이나 무법에 있지 않고 모든 잘못된 속박에서 벗어나는 데 있는데 그 속박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학문이 필요한 원칙에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중세 시대에는 국립대학이 없었는데 당시에는 학문이 “*학자의 공화국(respublica litterarum)*”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학문적 자유에 대한 침해는 국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영역인 교회에서 왔다고 카이퍼는 지적한다(Kuyper, 1899: 119-120, 박태현, 2021: 222-223).

서구에는 두 가지 지배적인 권력이 있었는데, 곧 교회와 국가였다. 몸과 영혼의 이분법은 이런 세계관이 반영된 것으로, 교회는 영혼이고 국가는 몸이었다.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었고 모든 다른 학문은 신학의 시녀였다. 나아가 교회 권력은 교황에게, 국가 권력은 황제에게 집중되어 교황이 태양이라면 황제는 달이나 별이었다. 이러한 이원론이 갈등을 일으켜 더 높은 통일성이 요구되자 교황과 황제는 대권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하곤 했다. 이 점에 대해서

는 카이퍼가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쓴 두 권의 저작인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반혁명적 국가학)*” 1권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Kuyper, 1916).²⁾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로 제3의 기관인 대학이 등장하여 교회와 국가와는 독립된 영역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황과 황제는 이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통치 아래 두려고 시도했다. 결국, 경쟁에 밀린 대학들은 교황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따라서 다른 대학들도 그 뒤를 따르게 되었다. 그 결과 학문은 독립성을 포기하게 되었고 학문의 영역이 교회와 전혀 다른 영역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간과되었다고 카이퍼는 강조한다(Kuyper, 1899: 120-121, 박태현, 2021: 223-224).

개혁 신앙은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는데 특히 칼빈주의적 신앙은 교회 안에서 수직적 위계질서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공화적이며 수평적인 페러다임을 도입했다. 그 결과 대학을 다스리는 영적인 교회라는 머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루터교도들에게 그 대학을 다스리는 가시적 머리는 땅의 통치자였고 그들은 이 군주를 ‘제 1주교’로 존경했다. 하지만 교회와 국가를 다른 독립적 영역으로 구분했던 칼빈주의적 국가들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박사 학위는 여론이나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기관의 학문적 특성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자 교회는 다른 압력을 학문에 가했는데 가령 개혁자들의 의견과 출판물에 대해 비난하며 그들을 박해했는데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카이퍼는 비판한다. 가령 교회와의 갈등으로 움츠러든 갈릴레오는 침묵하며 상황에 순응했는데 이에 반대하고 맞서면 종교 재판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로운 탐구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으며 당시 교회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이다(Kuyper, 1899: 121, 박태현, 2021: 226).

하지만 카이퍼는 개혁 신앙인들은 일반 은총 교리를 통해 이런 잘못된 입장을 버렸다고 강조한다. 즉, 교회는 특별 은총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하며, 일반 은총의 넓고 자유로운 영역은 교회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마음이 자유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교회는 삶의 유일한 목적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고, 교회가 이 중심 목적과 일치한다고 인정하는 만큼만 사람들은 세상에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는 아무도 세상에 관한 연구에 헌신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성경적 신앙은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며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창 1:28)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순례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지만,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길에서 지상의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책임의식을 가진 청지기(responsible steward)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열정을 갖고 노동에 헌신했고 하나님의 부르심(vocation, *Beruf*)에 따라 땅의 모든 것은 사람에게 종속되어야 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피조계의 속성과 법칙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학문을 꺼리던 백성들이 새롭고 활기 넘치는 힘으로 자유롭게 학문의 연구와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고 카이퍼는 주장했다(Kuyper, 1899: 123, 박태현, 2021: 229). 가령 프랑스에서 네덜란드로 망명한 데카르트(René Descartes)와 포르투갈에서 네덜란드로 온 유대인의 후손이지만 범신론으로 출교당했던 스피노자(Baruch Spinoza) 그리고 프로이센에서 온 물리학자로서 수은 온도계를 발명한 파렌하이트(Daniel Gabriel Fahrenheit)도 일반 은총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가장 관용적인 네덜란드에 와서 학문의 자유를 누리며 발전시킨 것도 주목해야 한다.

나아가 카이퍼는 “일반 은총론”에서 학문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Kuyper, 1904: 487, Kloosterman, 2011: 33) 교회와 국가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등장한 기관이지만 학문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에 포함된 고유한 영역이며 소명인데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

2) 본서는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였으며 2022년에 출판될 예정이다.

아 모든 피조물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학문은 결코 교회나 국가의 산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물(een eigen schepsel Gods)”³⁾로서 고유한 원리가 있으며 자유롭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Kuyper, 1904: 488-490). 나아가 그는 “반혁명의 국가학” 1권에서 당시에 교회 대신 국가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고 대학에 간섭하는 것도 영역 주권의 원리를 강조하며 날카롭게 비판하였다(Kuyper, 1916: 266-268). 동시에 그는 “일반 은총론” 2권에서 죄의 파괴적 영향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앙과 통합된 학문이 필요함을 이렇게 주장한다(Kuyper, 1903: 512):

죄는 영혼(*ziel*)을 부패하게 하지만 신학과 교회는 이에 대항한다; 죄는 우리의 이해(*verstand*)를 어렵게 하지만 학문은 이것과 싸운다; 죄는 우리의 육체(*lichaam*)를 파괴하나 의학은 이것과 싸운다; 죄는 자연(*natuur*)을 저주하나 자연과학을 통해 우리는 반격할 수 있다; 그리고 죄는 인간 사회(*samenleving*)도 부패시키지만 우리는 법과 정의를 연구함으로써 이에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카이퍼는 신학, 인문학, 의학, 자연과학, 법학이야말로 대학 내에 가장 필수적인 학부라고 보면서 여기서 신앙이 학문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카이퍼는 대학이야말로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며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올바른 도구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모든 학문의 원리와 근본은 일반 은총의 기원이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며(잠 1:7)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잠 28:5b)고 말한다(Kuyper, 1903: 513, Kloosterman, 2011: 48).

도여베르트는 이 카이퍼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그의 독특한 기독교 철학 체계인 ‘우주법 이념 철학(Wijsbegeerte der Wetsidee)’을 정립하였으며(Dooyeweerd, 1935-1936) 나아가 학문적이고 이론적 사고는 결코 종교적으로 중립적이 될 수 없음을 그의 선형적 비판을 통해 명쾌하게 보여주면서 각 학문적 양상에도 영역 주권이 있음을 강조했다(Dooyeweerd, 1953-1958, Choi, 2000). 필자 또한 카이퍼가 이 점에서 영역 주권의 원리를 분명히 발견하여 학문의 독립적 영역을 보장한 것은 매우 중요한 공헌이었고 이것을 기초로 자유대학교를 설립하여 국가나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학문과 신앙을 통합할 수 있는 기독교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그 결과 후학들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본다.

5. 학문적 갈등에 해법을 제시한 신앙

마지막으로 카이퍼는 불가피한 학문적 갈등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밝혀낸 후 칼빈주의적 신앙은 이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고 강조한다. 그는 먼저 모든 학문은 신앙을 전제하며 양자 간에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든 신앙은 말로 표현되고 이 말들은 사상의 구현이 되어야 하며 이 사상은 우리의 상황과 상호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학문의 자유로운 탐구는 이론적 충돌을 낳을 수 있고 그 결과 여러 학파나 사조가 생기지만 이러한 논쟁들은 결국 국 원리(beginsel)의 갈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이신론, 범신론 또는 자연주의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들 간의 영적 대립(*antithesis*)이라는 것이다. 신앙이 우리 의식에 빛을 비추면 학문과 논증의 필요가 생겨나므로 갈등은 신앙과 학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우주가 정상적인 상태인가

3) 이 표현은 바빙크의 저작에서 카이퍼가 인용한 것이다(Bavinck, 1897: 125).

비정상적인 상태인가 하는 신앙적 관점 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일 우주가 정상이라면, 우주는 잠재력에서 이상(ideal)으로 가는 영원한 진화로 움직이겠지만 우주가 비정상이라면, 과거에 혼란이 일어났고 그 목적의 최종 달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중생의 능력뿐이다. 따라서 카이퍼는 학자들을 “정상론자들(Normalisten)’과 “비정상론자들(Abnormalisten)’로 나눈다(Kuyper, 1899: 123-125, 박태현, 2021: 231-232).

정상론자들은 자연적 자료에만 의존하며 모든 현상에서 같은 해석을 발견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원인과 결과의 논리적 추론을 파괴하거나 제어하려는 모든 시도를 반대한다. 이들도 형식적 의미에서 신앙을 존중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 자료와 조화를 이루는 한에서만 그렇다. 기적은 부인하며, 냉혹한 방식으로 지배하는 자연법만 존재하고 죄란 없으며 저급한 도덕에서 고등한 도덕으로의 진화만 인정한다. 이들은 성경을 인간의 작품으로 보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모두 제거하는 조건에서만 허용한다. 필요에 따라 그리스도도 인정하지만, 그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발전이 낳은 산물로 본다. 하나의 신 또는 최고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은 가시적 우주 뒤에 숨어 있거나, 모든 사물 속에 있거나, 인간 지성의 이상적 반영으로 간주하는 존재를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창조 개념을 거부하며, 진화만 받아들인다고 카이퍼는 지적한다(Kuyper, 1899: 125, 박태현, 2021: 232).

반면에 비정상론자들은 상대적 진화는 수용하나 무한한 진화는 반대하며 창조를 고수한다. 이들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유일한 존재이지만 죄가 그 본성을 파괴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중생,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주장하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이상적 규범을 발견한다고 카이퍼는 말한다(Kuyper, 1899: 125-126, 박태현, 2021: 233).

카이퍼는 이 두 학문 체계가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대립하여 양자 모두 인간 지식의 전체 영역을 주장하며 최고 존재에 관한 관점을 각자 세계관의 출발점으로 본다. 이 두 체계는 서로를 인정하는 상대적인 대립자가 아니라 전체 영역에서 서로 주장하고 있어 자신의 주장을 전체 체계로 세우는 노력을 단념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자신의 출발점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다. 성경의 가능성을 자신의 체계에 작게라도 가진 정상론자는 이중적이고 창조를 진화로 변형시키며, 중생과 그리스도와 성경을 전제하는 비정상론자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그 출발점이 다르며 그 기원에도 공통점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어느 것을 택하던 모든 것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Kuyper, 1899: 126-127, 박태현, 2021: 233-234).

나아가 비정상론은 오랫동안 별로 도전을 받지 않았다고 카이퍼는 말한다. 물론 르네상스가 불신앙적 경향을 은근히 장려했고 인문주의는 그리스 로마의 이상을 향한 열정을 창출했으며, 중세 말엽 정상론자의 반대가 시작되었지만, 그 후 수 세기 동안에도 전통적인 학문 체계의 기초는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와 반대 의견이 본격적으로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새로운 철학은 최초로 일반적 수준에서 기독교 세계관적 원리를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비정상론을 반대하는 다양한 학문 체계가 발전하여 법학, 의학, 자연과학, 역사학의 영역에서 무한한 정상적 과정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학문 탐구의 출발점으로 도입했다. 결국, 정상론적 세계관이 중심에 서서 세계를 정복했다고 카이퍼는 분석한다(Kuyper, 1899: 127-128, 박태현, 2021: 236-237).

하지만 카이퍼는 개혁주의적 신앙이 이러한 학문의 원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의식으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모든 학자는 자신의 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의식은 사물의 비정상적 특성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같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

의식이 강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약하거나 전혀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확실성이 분명하나 다른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증거(*Testimonium Spiritus Sancti*)’가 있으나 다른 사람은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 죄의식, 신앙의 확실성 및 성령의 증거는 칼빈주의적 신앙의 의식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정상론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식을 강요하며 다른 사람의 의식도 자신의 의식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신의 의식과 다른 사람의 의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순간, 사물의 정상적 조건은 허물어진다고 카이퍼는 주장한다(Kuyper, 1899: 129-130, 박태현, 2021: 239).

또한, 카이퍼는 칼뱅처럼 사람의 마음에 “신적 의식(*sensus divinitatis*)’과 “종교의 씨앗(*semen religionis*)’이 있다고 보지만 칼뱅이 신자의 의식과 불신자의 의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없으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확실성을 가질 수 없고, 성령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성경을 믿을 수 없다(요 3:3; 고전 2:14). 이렇듯 의식의 단절을 모르는 정상론자(비중생자)가 있고, 단절과 변화에 대한 경험을 가진 비정상론자(중생자)가 있다. 따라서 양자의 논리적 결론은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에도 학문이 평가 절하되거나 무시되지 않으며, 정상론자의 학문과 비정상론자의 학문의 차이는 탐구의 다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의식의 차이점에 있다는 것이다(Kuyper, 1899: 130-131, 박태현, 2021: 240).

오래전 대학에는 비정상론적 입장을 학문의 공리로 보았고 따라서 소수의 정상론자는 교수직을 얻기 어려웠고, 박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상론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더 많은 교수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카이퍼는 보며 21세기에 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비정상론자는 공적 위치에서 추방되고 있어 기독교 학자들은 이 근본적인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다. 현재 많은 대학은 학문적 능력만이 교수직을 차지하는지를 결정한다고 가정하지 원리적 차이로 두 노선이 대립한다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양자의 갈등이 커질수록 대학 생활을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학문은 체계를, 교훈은 일관성을, 교육은 통일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 원칙에서 있는 한 모든 부자연스러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카이퍼는 보았다. 또한, 칼빈주의적 신앙이 열어준 학문의 자유는 그 원리로부터 학문적 추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보장함으로써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카이퍼는 확신하여(Kuyper, 1899: 131-133, 박태현, 2021: 247) 자유대학교를 통해 신앙과 통합된 학문을 발전시키려 했다.

도어베르트 또한 이 카이퍼의 사상을 발전시켜 인간의 존재의 뿌리인 동시에 학문이 성립되는 중심인 ‘마음(hart)’이 절대자를 향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따라 학문과 신앙의 통합적 결과가 달라짐을 그의 선형 철학에서 명쾌히 밝히고 있다(Dooyeweerd, 1935, 1953). 필자도 카이퍼가 학문의 전제가 되는 신앙을 분명히 밝힘으로 어떤 학문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보며 이 점은 클라우저(Roy Clouser)도 매우 강조했음을 볼 수 있다(Clouser, 2005, 홍병룡, 2019).

III. 결론

지금까지 카이퍼가 학문이 신앙과 어떻게 통합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한 내용을 그의 저작들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먼저 학문과 신앙이 통합되어야 하는 근거는 칼뱅이 강조한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 때문이며, 만물의 통일성, 안정성 및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에 대한 신앙은 학문에 대한 동기를 일깨우고 발전시키며, 나아가 일반 은총 교리를 통해 학문을 중세적 억압으로부터 원래적인 고유한 영역으로 회복시켰고, 영역 주권을 주장하여

학문을 비자연적 속박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었으며, 정상주의와 비정상주의 간의 원리적인 대립을 구별함으로 불가피한 학문적 갈등에 대한 해법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카이퍼의 통찰력은 더욱 확대되어 ‘신칼빈주의’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영역에서 계승, 발전되고 있는데 가령, 카이퍼의 후계자들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가장 그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는 학문적 사고 자체에 대해 선협적 비판을 시도하여 학문이 결코 신앙적 전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한 도여베르트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카이퍼의 후계자들이 모인 대표적인 웹사이트로는 alloflifereedeemed.co.uk가 있다. 가령 정치학에서는 스킬런 (James Skillen), 예술 분야는 로크마커(Hans Rookmaker)와 지어벨트(Calvin Seerveld), 경제학에서는 하우트바르트(Bob Goudzwaard), 기술 분야는 반 리센(Hendrik van Riessen)과 스휴르만(Egbert Schuurman)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젊은 기독교학자들이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포럼C(ForumC)가 있으며 독일에는 마르부르크(Marburg)에 있는 신앙과 학문연구소(Institut für Glaube und Wissenschaft)가 같은 비전으로 사역하고 있다. 영국에는 리즈(Leeds)에 thinkfaith.net이 있어 젊은 기독교학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적 사고가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는지 탐구하고 있고 미국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칼빈대학교의 칼빈기독교학문센터(Calvin Center for Christian Scholarship)가 교수들의 통합 연구를 지원하며 텍사스의 베일러대학교(Baylor University)에도 신앙과 학문연구소(Institute for Faith and Learning)가 활동하고 있다.

기타 실제 정치 영역에서는 네덜란드에서 기독교 민주연합(CDA: Christen-Democratisch Appèl)과 기독교연합당(CU: Christen Unie), 교회는 네덜란드 개신교회(PKN: Protestantse Kerk Nederland)와 미국 및 캐나다의 기독교개혁교회(CRC: Christian Reformed Church), 대학은 미국의 칼빈대학교와 카이퍼 대학(Kuyper College)과 돌트대학(Dordt College), 워싱턴에 있는 공적 정의 센터(The Center for Public Justice), 커버넌트 대학(Covenant College), 캐나다 토론토(Toronto)에 있는 기독교 학문연구소(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리디머대학교(Redeemer University) 기타 카이퍼 재단(The Kuyper Foundation) 등이 있다.

하지만 그가 언급했고 공부했던 레이든 대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고 1876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신학부는 종교학부로 바뀌어 개혁주의적 교수들은 더는 임명되지 않았다. 이를 직시했던 카이퍼는 자유대학교를 설립하여 세속화된 학문과 대학을 개혁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모든 학문과 삶의 분야가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1980년 이후 이 자유대학교도 세속화의 영향으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은 매우 약화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아무리 한 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하였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여러 기독교 대학도 예외가 아니며 국내 기독교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아직 한국에는 적지 않은 기독교 대학들과 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가 카이퍼의 사상을 계승하고자 노력하면서 학술지 <신앙과 학문>도 발간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의 유산을 더욱 발전시켜 더욱 통합된 연구 업적이 많이 나타나길 바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박태현 역 (2020)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인간의 모든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서울: 다함.
- [Park, T. H. (2020) *Abraham Kuyper's Sphere Sovereignty: God's Sovereignty to All Spheres of Human Life* Seoul: Daham. Trans.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Amsterdam: Kruyt]
- 박태현 역 (2021)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문화변혁의 기독교 세계관 선언서**, Kuyper, A. (1899)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1899) *Lectures on Calvinism* 서울: 다함.
- [Park, T. H. (2021) *Abraham Kuyper's Lectures on Calvinism: Christian Worldview Manifesto for Cultural Transformation* Seoul: Daham. Trans. Kuyper, A. (1899)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Amsterdam/Pretoria: Höveker & Wormser. (1899)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 손봉호, 김영식 역 (1987) **근대 과학의 발전과 종교**, Hooykaas, R. (1972)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서울: 정음사.
- [Son, B. H., Kim, Y. S. (1987)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Seoul: Jeongeumsa. Trans. Hooykaas, R. (1972)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Regent College Publishing]
- 임원주 역 (2017) **일반 은혜: 타락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1권, Kuyper, A. (1902-04) *De Gemeene Gratie*, Vol. I-III. Kloosterman, N. D. Trans. (2015) *Common Grace: God's Gifts for a Fallen World*. Kloosterman, N. D. Trans. (2011) *Wisdom & Wonder: Common Grace in Science & Art* Christian's Library Press. 서울 : 부흥과 개혁사.
- [Lim, W. J. (2017) *Common Grace: God's Gifts for a Fallen World* Vol. 1, Seoul: Revival & Reformation Press. Trans. Kuyper, A. (1902-04) *De Gemeene Gratie*, Vol. I-III Kampen: Kok. Kloosterman, N. D. Trans. (2015) *Common Grace: God's Gifts for a Fallen World* Lexham Press. Kloosterman, N. D. Trans. (2011) *Wisdom & Wonder: Common Grace in Science & Art* Christian's Library Press]
- 최용준 역 (2013) **신앙과 학문의 통합 : 세계관적 접근**, Harris, R. A. (2004)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A Worldview Approach* Eugene, OR: Cascade. 서울: 예영.
- [Choi, Y. J. (2013)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A Worldview Approach*. Seoul: Jeyoung. Trans. Harris, R. A. (2004)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A Worldview Approach* Eugene, OR: Cascade]
- 홍병룡 역 (2019)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Clouser, R. A. (2005)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An Essay on the Hidden Role of Religious Belief in Theories* 서울: 아바서원.
- [Hong, B. R. (2019)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Seoul: Abbasuwon. Trans. Clouser, R. A. (2005)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Bavinck, H. (1897) "Rapport van prof. dr. H. Bavinck over het rapport van deputatn voor de opleiding, voor zooveel handelend over het verband der kerken tot de Vrije Universiteit," in *Acta der generale synode van de Gereformeerde Kerken in Dederland, gehouden te Middelburg, van 11 aug. to sept. 1896* Leiden: D. Donner.
- Choi, Y. J. (2000) *Dialogue and Antithesis: A Philosophical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Herman Dooyeweerd's Transcendental Critiqu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 Dooyeweerd, H. (1935-1936) *De Wijsbegeerte der Wetsidee* I-III. Amsterdam: H.J. Paris.
- _____. (1953-1958)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I-IV,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 _____. (2014) *Faithful mind, thoughtful faith : integrating faith and learning* Tustin, CA: VirtualSalt.
- Kuyper, A. (1916)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Eerste Deel: De Beginnselen, Kampen: J.H. Kok.
McGrath, A. (1991) *Johann Calvin* Zürich: Benziger.
allofliferedeemed.co.uk
thinkfaith.net

논문초록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요 정치가이며 언론인이자 교육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어떻게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했는지 고찰한 것이다. 카이퍼는 1880년 암스테르담에 기독교 대학인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를 설립한 후 1898년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칼빈주의에 관해 강연한 후 네덜란드어로 출판한 책 제4장에서 학문과 신앙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그가 1902-1904년에 3권으로 출판했던 *De Gemeene Gratie*(일반 은총론)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먼저 학문과 신앙이 통합되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 때문이며, 만물의 통일성, 안정성 및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에 대한 신앙은 학문에 대한 동기를 일깨우고 발전시키며, 나아가 일반 은총 교리를 통해 학문을 중세적 억압으로부터 원래의 고유한 영역으로 회복시켰고, 영역 주권을 주창하여 학문을 비자연적 속박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었으며, 정상주의와 비정상주의 간의 원리적인 대립을 구별함으로 불가피한 학문적 갈등에 대한 해법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카이퍼의 통찰력은 더욱 확대되어 '신칼빈주의(Neo-Calvinism)'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사상 전체와 그가 남긴 여러 저작을 고찰해 본 후 그가 남긴 영향을 간략히 평가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주제어: 아브라함 카이퍼, 학문, (신)칼빈주의, 일반 은총, 영역 주권